구역예배 말씀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6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 **본문** : 다니엘 1:1-21
- **요절** :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단 1:8)
- **찬송** : 383장(새찬송가 336장), 395장(새찬송가 342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격려를 줍니다. 그들은 모두 십대 후반에 속하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 오랜 인생 경험을 쌓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의 절개와 지혜로운 처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 나갔는가 하면, 요셉과 같은 지혜와 성실성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기원전 605년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1차 예루살렘 침공시에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 중에서 총명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그 소년들을 왕을 모시는 관원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으므로 조건부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한 다음 고기를 먹은 동료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열흘 후에 보니, 채식만 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오히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이에 환관장은 그들에게 3년 동안 내내 채식만을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 성도는 기도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무서운 꿈을 꾸고는 그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오게 하고는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시위대 장관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목숨도 경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 시간 여유를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오자 곧 그의 세 친구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이상 중에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들려주었으며, 이로써 자신과 세 친구는 물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목숨을 보전케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도(道)를 다스리게 하였고,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3.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꿈 소동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가 약 30미터요 폭이 약 3미터에 달하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우고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신상의 낙성식에 소집하였습니다. 왕은 모인 관원들에게 영을 내리기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요 만일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꼿꼿이 선 채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불려가서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받았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6~18) 하였습니다.

이에 세 친구는 추상같은 왕의 명령으로 결박된 채 일곱 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극렬히 타는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왕이 보니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데,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너무 놀라서 풀무 가까이로 가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에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므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다채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